그 사람 지금은

(24) 허경만 前 전남도지사 (하)

96년 YS 車안에서 무안공항 건설 약속 받아내

1992년 14대 총선까지 승리하며 5선 국회의원이 된 허경만 전 전남지사는 1995년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린다.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되자 전남지사 도전에 나선 것이다.

1980년 5·18 이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일, 1985년 민한당을 탈당해 신민당에 입당한 이후 또 한 번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당시 민주당에서 전남지사를 원했던 또 다른 정치인으로는 김영진, 한화갑 의원도 있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김성훈 당시 중앙대 교수를 천거했다. 물론 권노갑 당시 부총재도 동의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의원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퇴하기에 이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화갑씨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김성훈 당시 중앙대 교수를 내세웠어요. 다들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이긴다고 확신했어요. 같이 고생했던 당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을 상처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는 당시 광주·전남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청 이전을 확고하게 밀어붙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나의 전남지사 도전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사 사퇴할 지경" 국비지원 읍소

광주~무안 고속도 등 신규사업 따내

하지만 전남 동부권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불만이 많아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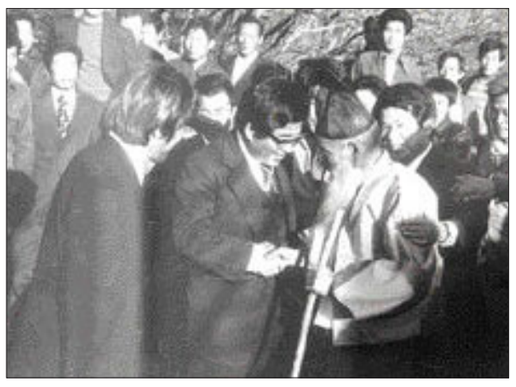
허 전 지사는 1995년 5월 광주시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선 결과, 339표 대 300표로 김 교수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른바 '김심'을 극복한 것이다. DJ의 뜻을 거스른 이 일로 허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본선에선 민자당의 전석홍 전 전남지사를 누르고 제1대 민선 전남지사가 됐다. 그리고 1998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했다.

허 전 지사는 민선 1기 동안 추진했던 광주·전남 통합작업이 수포로 돌아간 뒤, 재선에 성공하자 1998년 말 시·도 통합 포기 및 도청이전을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리고 즉각 1999년 1월부터 발 빠르게 도청이전 작업을 펼쳐 나갔다.

"처음에는 통합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광주시민들이 대부분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데 광주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통합에 반대한 것이지요. 그들은 통합되면 전남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있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허 전 지사는 자신을 스스로 'SOC지사'로 불렀다. 그만큼 SOC 건설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SOC가 없으면 지역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광주·전남지역에 SOC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지난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한 허경만 전 전남지사가 순천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 한 촌로와 만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약 력

- ▲1938년 순천 출생
- ▲순천고,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인천지청·목포지청·순천지청 검사
- ▲10~14대 국회의원. 14대 국회 부의장
- ▲평민당·신민당 원내총무, 민주당 최고위원
- ▲31대, 32대 전남도지사

그는 당시 야당의 자치단체장이면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설득, 무안공항, 광주-무안고속도로, 광양-전주고속도로, 장성-고창고속도로 건설 등 신규 사업으로 따냈다. 이런 성과를 거둔 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설득한 허 전 지사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청와대에 여러 번 대통령 독대를 신청했어요. 그러던 1996년 8월 광주지하철 기공식 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남공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 차에 제가 탔게됐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광주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장이 타야하는 자리였지요. 이미 청와대에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사 되고나서 SOC 한 건도 못했다. 이러면 도지사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YS가 '정말이냐'고 물었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라고 답하자 '알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전남지역 SOC 부분의 국비 지원이 많아졌어요"

허 전 지사는 이때까지 국회의원 선거 5번, 각각 두 번의 도지사 후보 경선과 본선거 등 모두 9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며 불패신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지사의 도지사 3선을 점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1995년 이변의 승리자가 됐듯, 이번에는 이변의 패배자가 됐다.

허 전 지사는 그해 5월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경선에서 박태영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2천2표 대 1천486표로 졌다. 김영진 후보까지 참여한 1차 투표에서는 1천44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실시됐고 박태영, 김영진 후보의 공조에 의해 3선의 꿈을 접어야 했다. 3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오점없이 정계 마무리한게 다행

정치 다시 할 생각 추호도 없어"

그리고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광풍이 몰아칠 때 민주당을 탈당,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허 전 지사는 "민주당에 몸담은 것은 독재 세력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일념이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과 공조로 탄핵을 가결, 국민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비민주적 사고의 극치라고 생각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정치라는 험악한 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온 것이 꿈만 같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송광사와 선암사

송광사 신라때 길상사…16국사 배출

선암사 해우소 국내 사찰중 가장 커

호남 고속국도의 주암 창촌에서 주암호반 길을 따르면 송광사, 곧장 터널 너머 승주 쌍암에서 상사호변 길로 접어들면 선암사에 이른다. 장흥 사자산에서 감돌아 동쪽 광양 백운산으로 뻗은 호남정맥 중 순천관내 조계산 동서 양록(兩麓)에 위치한다.

평활한 장밭등을 중심으로 동편 장군봉(884m) 아래에는 태고 총림(太古叢林)의 도량 선암사(仙巖寺), 서쪽 연산봉(솔뫼 851m)자락에는 승보(僧寶)사찰 송광사(松廣寺)가 자리 잡고 있다. 등산로를 따라 한나절 거리인 두 거찰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20호나 된다.

중국 소주부성에서 따온 조계산(曹溪山)은 661년 광동성 곡강현의 조숙량(曹叔良)의 '曹'자와 쌍봉 대계(大溪)의 '溪'자를 붙여 명했다는 설이 있다. 신평리 송광사와 죽학리 선암사 일대 조계산은 1979년 도립공원, 1998년 사적 및 명승 제8호로 지정됐다.

송광사는 신라말 길상사(吉祥寺)였다. 보조국사 지눌(知訥·1158~1210)이 정치와 밀착하여 순수성을 잃고, 교(敎)와 선(禪)의 대립으로 혼탁한 불교계를 반성하며

19세기 순천부 지도 중 조계산 일대(영남대박물관 소장).

정혜(定慧)결사의 중심지로 삼고 중창했다. 1204년 희종의 친필 사액으로 수선사(修禪寺)로 칭했으나, 조선 초에 뒷산 솔뫼를 따 송광사가 됐다.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는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보았으나, 불사를 거듭하여 비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자유롭게 경내를 오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소실 전 80여동의 건물이 있었다. 최남선은 1925년 심춘순례에 "빽빽해지는 송림과 철철거리는 계류, 둥글뭉수레한 멧부리가 유양불박(悠揚不迫)하게 짜놓은 동부(洞府)…장자(長者)집 호정(戶庭)에 든 것 같다"고 묘사했다.

선암사는 529년 신라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지만, 9세기 도선국사가 창설한 것이 유력하다.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이 1092(선종 9)년 크게 중창했다.

장군봉 팔부능선에 배바구(船岩)가 있다. 1704년 호연이 지은 사적에 호남의 삼암으로 월출 용암(龍岩), 백계 운암(雲岩)과 함께 선암(仙岩)을 들고 있다. 신선이 바둑을 두던 곳으로 보았고, 승선교(昇仙橋)와 강선루(降仙樓)에도 신선이 붙었다.

1761년 산강수약(山强水弱)한 지세와 화재예방을 위해 청량산(淸涼山)과 해천사(海泉寺)를 썼다. 심검당의 환기창에도 '水'와 '海'자 장식이 보인다. 타원형 연못인 삼인당(三印塘)도 비보(裨補) 기능으로 해석한다. 뒷간은 우리나라 절집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문화재자료 214호로 지정됐다. 응진전에는 눌암(訥庵1752~1830)이 쓴 '호남제일선원(湖南第一禪院)'이 걸려있고, 차밭도 유명하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